

'3高' 시대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3고(高) 시대'와 마주했다. 고금리, 고회율, 고유가의 어두운 터널을 얼마나 지나가야 할 지 예상이 쉽지 않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금리인하가 늦춰지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크다. 원화값은 약세를 이어간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유가를 끌어 올리는 중이다. 지난해 1.4% 성장에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2.1%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지만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먼저 금리인하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 당분간 고금리를 감수해야 할 판이다.

제품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금리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매파 성향(통화긴축 정책 선호) 발언을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그만큼 금리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다. 미국이 금

리를 더 늦게, 더 적게 내릴 것이라 월가의 전망이 지배적이다.

원화값도 크게 떨어졌다. 지난 16일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17개월 만에 1400원을 위협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당국의 구두개입에 겨우 1390원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전문가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지속되면 최대 145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한다. 1400원대 환율은 1997~1998년 외환위기(IMF사태)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등 주요 이벤트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

유가 상승도 심상치 않다. 중동지역의 전면전 위기는 유가 강세를 유발하고 있다. 유가 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금리인하 기대를 후퇴시킨다. 최근 브랜드 유는 90달러대까지 올랐지만 시장에서는 중동 전쟁 확산 시 최대 130달러까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2% 수준인 데다 이란이 석유 수출국가(OPEC)에서 세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아 위태롭다.

'3고 현상'이 무서운 것은 우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서다. 기름값 등 물가가 오르고, 이자부담이 커지면 소비는 당연히 위축된다. 사야할 것을 미루는 등 소비심리가 얼어 붙는다. 상품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7개월째 감소 중이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활력 저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축소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율과 유가 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0%)를 웃돌면 우리나라 금리도 내리기 어렵다. 실제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금리인하에 관한 신호를 줄 것"이라고 했다. 당분간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1100조원대)를 감안하면 대출이 많은 가계의 이자부담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3고 시대 극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수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완화 등 정책적 노력을 다방면으로 쏟아내야 한다.

/bluesky3@metroseoul.co.kr

도마뱀이 되어가는 느낌



김 준 영
청명파니

사람의 뇌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뇌간', '변연계', '대뇌피질'이 그것이다. 뇌의 가장 안쪽에는 뇌간이 위치한다. 뇌간은 혈압, 맥박 등을 관장한다. 파충류도 뇌간은 가지고 있다. 뇌간의 바깥쪽으로는 변연계가 있다. 변연계는 감정, 느낌 등을 관장한다. 파충류보다 좀 더 진화된 포유류부터 변연계가 있다. 그리고 뇌의 가장 바깥쪽이 대뇌피질이다. 이 부분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부분이다.

대뇌피질은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진화된 영장류들만 가지고 있다. 이렇듯 세부분은 고유한 기능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주도권이 바뀐다. 공부할 때는 대뇌피질이 주도권을 쥐지만, 싸울 때는 뇌간이 주도권을 쥐는 것이다. 싸울 때는 혈압을 높이고,

맥박을 빠르게 하여, 혈액을 온몸 근육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면 이성적인 설득이 힘들고, 사람도 도마뱀처럼 되어 버린다.

얼마 전, 어느 고객이 카페 사장을 무릎 꿇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 A씨는 카페에서 음료를 배달 주문했는데, 실수로 빨대가 빠졌다. A씨는 다시 빨대를 보내달라고 했고, 사장은 사과의미로 빨대와 케이크를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소를 잘못 받아 적는 바람에 배달이 지체 되었다. A씨는 카페를 찾아와 강하게 항의했고 사장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방송사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마치 싸울 듯이 흥분해 있었다. 뇌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반면 사장은 싸울 수가 없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장은 대뇌피질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셈이다.

앞선 사례가 아니더라도 살아가다 보

면,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법'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대를 무릎 꿇리는 것은 가장 질이 낮은 방법이고, 도마뱀의 방식이다. 도마뱀의 방식은 또 다른 적을 만들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 시킨다. 그리고 이런 풍조가 계속되면, 대뇌피질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람도 결국 싸움에 나서야 한다. 이성적인 사람들도 끊임 없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삼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현재의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도마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느끼지 못 한 채, 서서히 도마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오늘의 운세 4월 19일 (음 3월 1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마음을 비워라. **48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많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60년생** 삼재기도를 올리는 것도 방법일 듯. **72년생** 깊은 밤은 새벽을 위한 준비이다. **84년생** 분수는 자신을 아는 것인데.



37년생 꽃피고 새가 울기 시작했으니 발전. **49년생** 앞으로도 계속 순탄하다. **61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이나 신발에 신경 써보자. **73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라. **85년생** 공부하는 두뇌는 명석하나 신경질적.



38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주의. **50년생** 자손들과 이별 수이니 미리 챙겨보라. **62년생** 지난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 **74년생** 남의 눈에 티끌은 크게 보이는 법 나를 돌아보라. **86년생** 꿈과 소원은 분수를 넘어서도 안 된다.



39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51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온통 빛나게 하니 상서로운 징조다. **63년생** 의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다. **75년생** 소모하려 하지 말고 여유를 두라. **87년생** 재물이 계속 들어오니 횡재수가.



40년생 과로하면 병이 생기니 천천히. **52년생** 소극적인 성격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다. **64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말 것 같으나 자중할 때. **76년생** 매화가 피었으니 봄이 멀지 않았다. **88년생** 실천을 통한 지식이야말로 산지식이 될 수 있다.



41년생 조상재산으로 형제자매가 분쟁한다. **53년생** 마음이 통하는 동료를 만나니 일 처리가 매끄럽다. **65년생** 오락임으로 다시 재기가 된다. **77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안할 터. **89년생** 사람의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늘어난다.



42년생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좋다. **54년생** 머리가 맑으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66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낙낙하지도 않다. **78년생** 소개로 만난 연인으로 금전 지출이 많아진다. **90년생** 부유해도 겸손하게 저축해보자.



43년생 뜻밖의 불운은 언행에서 시작이니 말조심을. **55년생** 돈이 있다고 없는 친구에게 번덕을 부려서야. **67년생** 부모님 뵈러 고향 가는 날. **79년생** 직장을 이직해보니 감언이설이 많아진다. **91년생** 씨를 뿌린 만큼 수확으로 거두게 되니.



44년생 나이 들수록 고집 피운다고 대우받지 못한다. **56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 한 것이니 서운해 마라. **68년생** 생각이 많아 복잡한데 후회에 해결. **80년생** 구름이 겹히니 빛이 밝힌다. **92년생** 인연 성취하기 위해 기도 발원.



45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으니 낙담 말고 도전. **57년생** 두드러져 열릴 문이면 힘껏 두드려라. **69년생** 한발 물러서 보면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다. **81년생** 이상적인 인연을 만나는 날. **93년생** 현실을 서러워 말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라.



46년생 배우자의 소중함이 절로 느껴지는 날이다. **58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서두르지 마라. **70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82년생** 샬러리맨으로 명예로운 진급이 우선. **94년생** 흘러가는 대로 유유히 하루를 보내자.



47년생 금전 문제로 가족 간의 다툼이 예상된다. **59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오늘 은 현상유지만. **71년생** 한 가지 재능으로도 출세는 가능. **83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아시라. **95년생** 복이 도달되니 지혜도 우러난다.



김상회의四季 금테크

어떤 물건이 귀해지고 값이 많이 나가게 되면 금값이 뒀다고 한다. 요즘 금값이 된 물건이 있으니 그건 금이다. 국제 시장에서 가격이 뛰면서 금이 말 그대로 금값이 뒀다. 금리가 낮아지면 화폐가치는 떨어지지만 대표적 실물자산인 금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상승세를 보인다. 금값이 급하게 오르는 걸 보면서 개인들도 금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으로 채테크를 하는 이른바 금테크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주식이나 부동산만 지켜보던 사람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금테크를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한다.

금투자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도 되고 실물로 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은행에 금통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골드뱅크라고 한다. 금으로 예금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금을 0.01그램씩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 거래 단위가 작아서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건 단점이다. 실물로 골드바를 구매하는 것도 금테크의 한 방법이다. 골드바는 금은방이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구매하면 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골드바를 살 수 있는데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안전한 방법으로 결제해야 한다.

금 ETF나 금 펀드도 금융상품으로 나와 있어 어느 정도 공부를 거치면 어렵지 않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금테크가 대중적인 채테크는 아니라고 해도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다. 문제는 금값이 언제까지 얼마나 오를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내리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편이다. 금값이 급하게 널뛰어도 투자에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으니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41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2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경활성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9	2	1		4	
			8	7	3			
1	4		3					
2	5				4			
4	6						3	1
		3					2	5
					4		9	7
		1	2	6				
5	4	8	2					6

6			9	2	1		4	
			8	7	3			
1	4		3					
2	5				4			
4	6						3	1
		3					2	5
					4		9	7
		1	2	6				
5	4	8	2					6